

## 서구, 여성가족친화마을 공모 7곳 선정

주민 주도 여성친화도시 본격 가동...3000만원 지원

서구가 주민 주도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구는 여성가족친화마을 공모를 통해 ▲서창림(미성 활용 및 농산물 활용 먹거리 수업) ▲좁마리 봉수(돌봄, 명상·평화환을 통한 여성 역량강화) ▲꽃꾸는터진 작은 도서관(과파보이스 운영) ▲화이커(남성양육자와 함께하는 체험활동) 등 지원단체 7곳을 선정하고 공모사업 심사위원회 등 심사를 거쳐 총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마을단위의 돌봄기반 조

성 및 여성 취업 역량강화·창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서구는 지역공동체 안에서 아버지가 자녀의 돌봄을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성양육자 돌봄 수행 공동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월 공모사업 참여 희망 단체 대상 전담 컨설턴트를 배치해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에 부합하는 사업방향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도 진행했다. /조선주 기자

## 전남, 유기농 생태마을 추가 모집

오는 22일까지...소재지 읍·면·동서 접수

전남도가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고 생태환경이 살아 숨 쉬는 유기농 생태마을을 신규 모집한다.

유기농 생태마을은 벼·과수 등 일정한 규모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마을이다. 도는 유기농업의 지속적인 확산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2009년부터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정된 마을은 57곳에 이른다.

벼 농가의 경우 10ha 이상 농가가 참여하는 친환경 농업 실천 마을 중 친환경 인증 면적 10ha 이상, 유기농 인증면적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의 30%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과수나 채소 농가는 5호 이상의 농가가 참여하는 친환경 농업 실천 마을 중 친환경 인증 면적 1ha 이상, 유기농 인증 면적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의 30% 이상으로 구성원의 친환경 농업 실천 의지가 강해야 한다.

생태마을 지정을 바라는 마을은 오는 22일까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시·군에선 검토를 통해 도에 추천하게 된다.

도는 추천된 마을에 대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가 현장과 발표평가를 거쳐 5월 말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할 예정이다. /김 호 기자

## 광주교육청 '수능 문항 분석 자료집' 보급

수능 대비 교사지원단, 고교 교사 대상 자료 개발

광주시교육청은 8월 2024 수능 문항 분석 및 수업 적용 방안 자료집을 전체 일반고등학교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집은 수능과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검토 참여 교사들로 구성된 시교육청 수능 대비 교사지원단이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자료이다.

수능시험 대비 교수·학습 과정과 수업 적용 방안을 제시, 학생들의 수능시험 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했다. 수능 시험 영역인 국어·수학·영어·한국사·사회탐구의 2024학년도 수능 기출문제를 분석, 수업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료집은 영역별로 수능 문항을

제시하고, 문항을 분석한 뒤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기타 수업 활용 팁을 안내하고 있다.

수능 대비 교사지원단은 수능 및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검토 등에 실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교육 내에서 효과적으로 수능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수업 활용 자료를 제작했다.

전국단위 모의고사가 없는 8월과 9월 수능시험 한 달 전인 10월에 광주 지역 수능 모의평가 '광주 최종 완성'을 개발, 학교로 보급할 계획이다.

국어·수학·영어 교사 각 15명, 탐구영역은 과목별로 각 4명, 총 77명의 교사가 지원단에 참여하고 있다. /조선주 기자

## 동구-경찰, 청소년 중독범죄 예방·치유

중독상담 지원...정보 공유·예방 교육 협력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최근 광주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청소년 마약·도박 등 중독범죄 예방·치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동구민의 4대 중독(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설립된 정신 건강 지원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사이버 도박·마약 중독과 이로 인한 2차 파생 범죄를 예방하고자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두 기관은 ▲중독 청소년 선정·치유 회복 프로그램 적극 연계 ▲재발 방지를 위한 중독 상담 지원 ▲중독범죄 관련 정보 공유·예방 교육 등 상호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조선주 기자

# 신규 공보의 35% 감소...의료 취약지 어떡하나

### 올해 복무 만료자 대비해 302명 적어

### “신규 인원 크게 줄어...순회진료 확대”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새공보의) 신규 지원이 전년 대비 3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새공보의) 716명이 8월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규 공보의 1106명보다 35% 줄어든 수치다. 올해 복무

만료자 1018명보다도 302명 적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체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공보의 인력이 감소하고 있고 올해 새로 배치할 신규 인력도 대폭 감소해 지역의료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며 “향후 인력 수급도 전망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추가로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인 의료 체계 개혁과 의사 증원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좀 더 원활하게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 등 총 716명이며, 분야별로는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 등이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716명은 지방자치단체에 683명, 중앙기관에 33명이 배치된다.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해 전

산 추첨을 통해 오는 11일 각 시·도와 교정시설 등 중앙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들어 따라 놓여온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한 공보의 파견근무로 발생한 지역 주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보건소·보건지소에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뉴스시스



강진소방서 의용소방대 ‘산불화재 예방 캠페인’ 8일 강진소방서는 3월 중순부터 청명·한식(4월 3일~6일) 기간까지 불철에 산불이 집중됨에 따른 강진군 의용소방대와 함께 월출산, 주작산 등 15개소에서 ‘산불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불철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식물활동, 성묘 등 등산객 등의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험성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강진소방서 제공

## ‘세월호 참사 10주기’ 목포서도 추모행사 열린다

지역문화제·전시회, 청소년작품공모전 등 다양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세월호가 거처되고 있는 전남 목포에서 다양한 추모행사가 열린다.

25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잊지않기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는 4월 한 달간을 ‘세월호 10주기 추모기간’으로 선포하고, 기억식과 기억전시회 등 추모행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목포 원도심에 갤러리 나무와 통겔러리 두 곳의 전시공간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전시회’가 2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목포와 전남에서 활동하는 미술작가 37명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시대적 아픔과 희생자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오는 13일 오후 4시 16분에는목포 평화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문화제’를 갖는다.

‘열 번째 봄, 기억하고 책임지는 미래’란 주제로 진행되는 문화제에서는 세월호 그림엽서, 손수건, 무드등 만들기 등의 예술체험을 식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시낭송, 남성 3중창, 청소년오케스트라, 퍼포먼스 등 다양한 추모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목포시민 304명이 참여해 세월호 희생자의 이름을 한명씩 부르며 거대한 리본을 완성하는 퍼포먼스 ‘이름을 불러주세요’를 진행한다. 이번 기억식에는 ‘0416단원회가 주최’하는 ‘소속 유가족들과 10.29이

태원참사 희생자의 가족들도 함께 참여해 세월호 10주기의 의미를 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3회 416 생명과 안전 전남청소년 작품공모전’도 열린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과 안전한 나라에 대한 희망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슬픔을 넘어 안전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담은 청소년들의 미술작품을 공모하며 최종 선정된 수상작은 전라남도 교육청 갤러리 이음과 갤러리 나무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박현숙 상임공동대표는 “세월호참사 10주기를 국가가 밝히지 못한 진실을 다시 찾아나가는 출발점으로 삼아 진상규명 활동과 생명존중 안전 전시회를 만들기 위한 기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목포·김근호 기자

## 광양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 발달상담 지원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언어 및 발달 지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는 ‘아동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21년 센터가 설립된 이래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센터 내 아동발달지원실로 방문 상담을 신청하면 특수교사 자격을 소지한 상담가가 영·유아 발달검사(K-CDI), 부모양육스트레스 검사(K-PSD) 등의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상태를 진단하고 적합한 양육 방법을 지도해준다.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아동발달 상담’을 신규로 시행해 상담사가 직접 보육기관을 방문하여 원장과 보육교사를 상담하고 아동별 특성에 맞는 맞춤 지도법을 코칭해준다.

영·유아의 놀이 현장 관찰을 통해 숨어있는 ‘느린학습자’ 학습의 어려움을 가진 경제성 지는 아이를 찾고, 필요시 센터 아동발달상담과 연계해 예방적 보육을 돕는다.

상담 신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회원이라면 누구나 전화 예약(061-797-1956)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찾아가는 아동발달 상담’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월별 상담일정이 공지되면 보육기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회신하면 된다.

## 북구, 도서관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공모 선정

북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24년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을 거점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문화예술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도서관 문화예술 커뮤니티 구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는 전국 지자체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음악 ▲연극 ▲미술 ▲기타 분야 등 4개 분야로 나눠 신규 가운데 유일하게 중흥도서관이 미술 분야에 ‘새 활용 공예 동아리 운영 지원 사업’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중흥도서관에서는 지역 초등학생 대상으로 지속 가능발전목표 관련 도서 독서와 주제별 재 활용 공예 등 소재로 공예 활동을 지원하는 ‘지구를 지키는 아이들’ 동아리가 오는 20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월 세 번째 금요일에 운영된다.

또한 11월 23일에는 참여 학생들이 자신이 만든 새 활용 공예 작품을 전시하고 관람객에게 설명해 볼 수 있는 성과공유회가 열릴 예정이다.

##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지닌 전남 기초지자체 공무원 송치

음란동영상 불법 다운 소지...신고 결과에 따라 징계 검토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소지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남 모 지자체 공무원 A씨를 송치했다. A씨는 최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음란 동영상

불법으로 내려 받아 소지한 혐의다.

해당 지자체는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뒤에야 이러한 사실을 안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자체는 A씨에 대한 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 호 기자

## 광산구 신가동, 지역-학교 상생 복합시설 추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2028년 개교 목표

광산구가 광주시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또 하나의 결실을 거뒀다. 광산구와 시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가장 ‘신가2중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이 교육부 2024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돌봄, 교육, 문화, 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 초 신가동 주택재개발구역 내 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된 학교가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중학교 분리 신설과 지역 청소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광산구는 광주시교육청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주민 요구를 전달, 중학교 분리 신설과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교육부 공모에 공동 응모했다.

공모 선정에 따라 광산구는 교육청과 함께 국비 17억 원 등 58억 원을 투입, 신가동 주택재개발사업지역 내에 가장 신가2중학교를 신설하고, 학교복합시설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시설로 자율공간, 스타디움 등 청소년 복합시설과 실내스�포츠, 공연장 등을 갖춘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민선 8기 들어 가장 광산교육지원센터 구축 추진, 가칭 ‘광산고등학교’ 신설 등 산적했던 광산구 교육현안이 속속 풀리기 시작한 가운데, 이번 공모 선정은 광산구 과밀학교 문제 해소와 지역 교육 여건 개선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 신설에 대한 정부 중앙투자 속도가 늦게 된 것. 이와 관련, 신가2중학교는 신가동 주택재개발사업추진 일정을 고려해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동기 기자